

# 求禮 龍山磨崖如來立像

秦 弘 燮

求禮邑 南方에 오목하게 솟아 있는 산이 龍山(一名 白雲山)으로 있다. 標高 五〇〇m나 되어 보이는 이 산의 山頂은 岩石이 솟아 있고 東으로 멀리 華嚴寺의 寺域이 바라다 보이며 이 산 밑을 구비쳐 흐르는 蟾津江이 흐르고 있어 龍山이란 이름도 이런데서 생긴 듯하다.

山頂에는 四聖庵이라는 庵宇가 있고 그 南쪽에 西向한 大岩石이 聳立하였고 그 앞에 左右로 別個의 屏風같이 岩石이 솟아 凹形을 이루고 있다. 如來像은 一〇m에 가까운 西向한 岩石下部에 線刻되어 있다.

頭・身 兩光背가 있는 立像은 全高約 五m에 身高約 四m이다. 上半部는 刻線이 比較的 明瞭하나 下半部는 희미하여 特別 臺座部分은 分別하기 힘들 程度이다. 肉髻는 큰 便이고 顔面은 豐滿하며 正眼正視하고 있다. 兩耳는 길게 늘어졌다. 목에는 三道가 있으며 法衣는 通肩이며 衣紋은 腹前에서 弧線이 連續되었고 두 팔에 걸친 衣端이 밑으로 늘어지면서 左右로 展開되고 있다. 前面 兩脚사이에서 마치 慶州 斗笠 磨崖三尊佛 本尊像의 衣文과 같이 一種의 花文같은 形態를 이루는 듯하다.



이連續되었고 두 팔에 걸친 衣端이 밑으로 늘어지면서 左右로 展開되고 있다. 前面 兩脚사이에서 마치 慶州 斗笠 磨崖三尊佛 本尊像의 衣文과 같이 一種의 花文같은 形態를 이루는 듯하다.

그 밑으로 兩尼의 位置나 臺座의 形態는 刻線이 희미하여 잘 알아보기 힘들다. 右手는 가슴앞까지 들어서 外掌하였고 左手는 腹前에서 內掌하고 있는데 모두 拇指와 長指를 대고 있는 듯하다. 背光은 二重刻線으로 頭光과 身光을 나타내고 있는데 身光 內側에 左右 各三處에 蕨形의 草文三條가 있고 頭光 外側에는 頂上과 左右에 簡單한 火焰文이 있다. 이 磨崖佛이 있는 位置는 이 近處에서는 相當한 景勝地로 보여지며 그 山頂에 솟은 巨大한 岩石에는 磨崖像이 있음직한 곳이다. 이들 岩石 中正西向한 岩石을 擇하였고 그 前面 左右에 岩壁이 있어 絶好한 位置를 擇하였다. 本像은 그 方向으로 보나 手印으로 보나 阿彌陀如來像이 아닌가 보여진다. 下部에 이르러 一部 磨損된 部分이 있고 그다지 刻明하지는 못하나 刻線이 잘 남아 있고 上半身은 比較的 功을 드린 痕蹟이 보인다. 造成은 高麗初로 보여진다.

全高 四·八九m 身高 三·八九m 頭高 〇·七三m 肩幅 〇·九八m 身光幅(最大) 一·六八m

## 瑞山出土 金銅佛立像

李 殷 昌

瑞山郡 浮石面 江堂里 ① 寺址로 推定되는 곳에서 部落民 李敦教氏에 의하여 偶然히 發見된 出土品인데 浮石寺(浮石面 都飛山) 住持 任啓福氏가 現在 所藏하고 있다.

이 佛像은 鍍金部分이 벗어진 곳이 있으나 現今도 그 金色이 燦爛하며 總高 九·三cm로 直立正面觀의 鍍金小像이다.

頭部는 磨滅로 그 모습을 분간하기 어려우나 仔細히 살펴보면 突起部가 殘存하여 寶冠을 戴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顔部는 金皮가 褪落되어 分明치 않으나 半月形의 眉線과 眼尾가 若干 위로 치켜 올라감이 보이고 大體로 溫容豊頰의 表現이다. 兩手는 正前에 모아 合掌하였으니